경영저널

인터넷신문 www.경영저널.com
THE CRITICAL JOURNAL OF MANAGEMENT AND ECONOMY

Hot Issue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와 선거예측
공공요금 전기요금 진단
시사in 경찰 수사권, 인권 무시 등 부정적
커버스토리 김하수 청도 군수
지자체가 뛴다 청도공영사업공사
기업탐방 아웃소싱 전문기업 (주)바스코
이달의 대경인 (주)에스크컴퍼니 안중현 회장 인터뷰
Economy 주식투자와 동학개미 엑소더스
칭찬합시다 수성구청 정책추진 단장 「정진상」 팀장

63TH
2024 8

www.KEPI.or.kr
80
60
40
2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KEPI
한 | 기 | 연

contents | www.경영저널.com August 2024 8

06 **청호(靑浩)칼럼**
정치, 법 위에 국민

08 **경영평가**
경영평가사 자격증의 필요성

10 **공공요금**
전기요금 진단

12 **법과 제도**
선금의 부채 제외

15 **커버스토리**
김하수 청도군수

22 **지자체가 뛴다**
청도공영사업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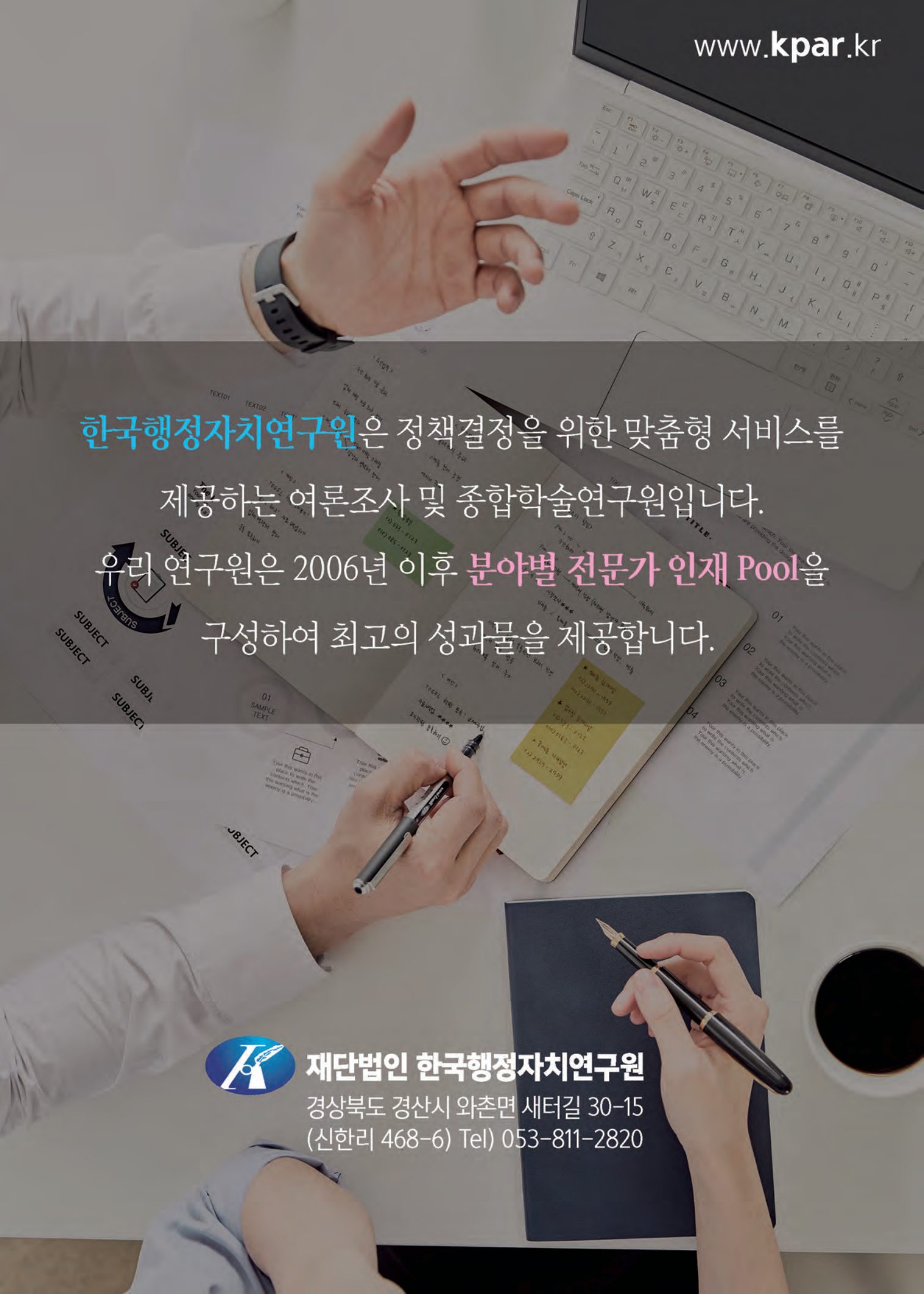
24 **산업**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단 / 청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26 **음식명가**
황토추어탕

28 **청도 기행story**
청도의 선비 탁영(濯纓) 김일손과 소요당 박하담 이야기

30 **Hot issue**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와 선거 예측

32 **Economy**
주식투자와 동학개미 엑소더스


www.kpar.kr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정책결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론조사 및 종합학술연구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6년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인재 Pool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과물을 제공합니다.
재단법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811-2820

contents | www.경영저널com June 2024

8

37

34 **지역정가 소식**
청도군의회 의원

36 **칭찬합시다**
수성구청 정책추진 단장 「정진상」 팀장

38 **이달의 대경인**
㈜에스크컴퍼니 안중현 회장 인터뷰

40 **기업탐방**
아웃소싱 전문기업 (주)바스코

42 **축제 및 관광 story**
대구, 경북 축제

46 **초대석**
대한민국의 출산율 급감에 대하여
지방대학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48 **시사in**
경찰 수사권, 인권무시 등 부정적

50 **대구 경북 단신**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기공식 개최
경북도, 민간전문가 그룹 활용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모색

54 **불편한 진실**
KBS TV 수신료

경영저널 통권 제63호

발행인	이진구
편집국장	김문철
취재	김원현, 오상원, 이가윤, 이경윤
사진	신영민
편집디자인	김수영
편집위원	조대영, 윤일형, 김용우
디자인·인쇄	워커스 대표 김정석
발행처	http://www.경영저널.com
본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대구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월드컵대로5길 48-19
대표전화	대구 053) 766-1368~9 FAX 053) 766-0379
등록번호	경산. 라 00011
창간	2007년 11월 5일

구독 및 광고문의 053)766-7369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연 100,000원
정가	10,000원
예금주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구은행 225-12-003611
	농협은행 301-0258-049101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용지 1장(글자 10포인트)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시 도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수성구 월드컵대로5길 48-19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bmjglobal999@gmail.com
전화: 053)766-1368~9 FAX)766-0379

정치, 법 위에 국민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고 국어사전에 명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의 주체는 정치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입법·사법·행정 등의 국가기관과 개인 및 언론·정당·시민단체 등을 말한다.

우리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법률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입법부, 즉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 정치인이라고 통칭한다.

국민대표, 국회의원 의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청렴·국익 우선, 지위 남용금지」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국민대표자로서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민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선서와 동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방탄 국회로 사회·경제적 난항

최근 국회는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건설 및 내수불황 등으로 민생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이념적·정치적 대립만 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 야당은 대통령 탄핵추진, 일방적 법률 제정, 그리고 검찰의 권한 축소 등을, 여당은 국민의 힘 대표선거로 인한 갈등과 분열, 그리고 총선용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의 수습 불가 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은 방탄 국회로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상 유례없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의원, 소환법 도입하여야

『영국 유권자는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동안만 자유롭다.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즉시 노예가 된다』고 대의민주주의 한계와 문제점을 루소가 1762년 「사회계약론」에서 지적했다.

영국은 약 250년 후인 2016년에 하원의원 소환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 대한민국도 유권자에게 리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오직 국민

국회의원은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애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상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국회법상 발의권과 질의·질문권, 그리고 김영란법 등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권을 부여받은 모든 정치인들은 오로지 국가이익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 감시하여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을 반드시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진구
대표이사·발행인

whitequeen.co.kr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헤이븐의 진료철학입니다.

헤이븐은 모든 시술 및 수술에서 고객에게 어울리지 않는
불필요한 수술은 권하지 않으며 정품 · 정량 약품을 사용합니다.

헤이븐의원
HAVEN CLINIC

보톡스 | 필러 | 윤곽주사 | 리프팅 | 피부 | 비만 | 성형수술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6, 4층(동성로2가) / 전화 : 053-721-7883 / 팩스 : 053-721-7886

경영평가사 자격증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 있어 기업을 운영하고 경영을 한다는 것은 넘쳐나는 경쟁력 있는 경쟁사들과의 전쟁과도 같은 것일 것이다.

그래서 크든 작든, 그리고 그 사업에 무관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또는 계획이 있는 경영인 또는 경영 관련 실무자라면 반드시 사회적경제 조직 내의 경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본 보는 「경영평가사」라는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경영평가사의 필요성

현대 경영 환경에서는 기업의 운영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경영평가사」라는 새로운 자격증이 등장하였는데, 이 자격시험은 기업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경영 전문가라면 필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경영평가사의 역할

경영평가사는 기업의 운영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단순히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 객관적 평가 제공

경영평가사는 외부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업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는데, 이는 내부의 시각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식별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경영진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 효율성 및 재무 상태 개선

경영평가사는 재무 성과와 수익성 지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돕는다. 이는 특히 공공기관과 같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경영평가사는 이러한 기관들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본래의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균형 잡힌 운영을 지원하기도 한다.

▷ 경영 성과 극대화

경영평가사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기업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전략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기업 경영 분석

경영평가사는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경영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기업이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돕는다. 경영평가사의 분석과 제안은 경영진이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또한, 경영평가사는 경영 실적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

는 경영진이 현재의 경영 전략을 재검토해 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략을 수정 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경영평가사의 피드백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 신뢰성 향상

경영평가를 통해 작성된 경영 실적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감독기관, 고객이나 직원들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된다. 정부, 지자체, 이사회 등 감독기관은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운영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투명성 제고

경영평가사는 기업의 운영 상태를 투명하고 꼼꼼하게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높이게 된다.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명한 경영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경영평가사는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데 좋은 결과를 준다. 경영 실적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운영 상태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업에 필수적인 경영평가와 경영평가사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경영평가사는 기업의 운영 상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 사회의 경영인이라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인 것이다.
경영평가사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조대영 연구위원

전기 요금 진단

공공요금 인상 본격화 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3개월 연속 2% 상승하고, 유류세 인하폭 축소와 지하철, 택시비 까지 인상하는 등의 기사를 경영저널 본지에 보고 한 바 있다. 이에 경영저널 이번 호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요금 진단을 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최근 6월 21일 한국전력공사에서 3분기 전기요금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분기 적용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 적용 되었던 kWh당 5원으로 유지, 확정되었다고 밝혔으며 한국전력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에너지 위기로 한국전력공사는 2021년~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총부채는 200조 9000억원으로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매년 4~5조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들어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난 데다, 물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철에 전기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3분기 전기요금 동결되면서 한국전력공사 경영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만큼 재무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4분기(10월~12월) 전기요금 협상에선 인상이 유력하다는 예상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노력만으로 대규모 누적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요금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었다.

오상원 기자

전기요금 구조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종별 요금표 참고

기후환경요금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RPS, ETS, 석탄발전 감축비용)
- 부과방식 : 기후환경요금단가 × 사용전력량

연료비조정요금
- 연료비 변동분(석탄, 천연가스, 유류)을 반영하는 요금
- 부과방식 : 연료비조정단가* × 사용전력량 * 상하한 ±5원/kWh

※ 청구금액 = 전기요금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 5입) : 전기요금 × 10%
- 전력사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전기요금 × 3.2%

출처: 한국전력공사 사이트

복지할인 요금제도

대상		할인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이전 유족 1인		정액할인 (월 1만6천원, 여름철 2만원 한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정액할인 (월 1만6천원, 여름철 2만원 한도)
	(주거, 교육급여)	정액할인 (월 1만원, 여름철 1만2천원 한도)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정액할인 (월 8천원, 여름철 1만원 한도)
3자녀 이상 가구 · 주민등록표상 자(子) 또는 손(孫) 3인 이상		30% 할인 (월 1만6천원 한도)
대가족 가구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		30% 할인 (월 1만6천원 한도)
출산 가구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 포함 가구		30% 할인 (월 1만6천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사용고객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30% 할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30% 할인

* 여름철 구분 : 6월 1일 ~ 8월 31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액할인은 정률할인(30%)과 중복 적용 가능

출처: 한국전력공사 사이트

전기 요금표

주택용 (저압)				
구분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구간	금액	구간	금액
기타계절	200kWh이하 사용	910	처음 200kWh까지	120.0
	201~400kWh이하 사용	1,600	다음 200kWh까지	214.6
	400kWh초과 사용	7,300	400kWh초과	307.3
하계	300kWh이하 사용	910	처음 300kWh까지	120.0
	301~450kWh이하 사용	1,600	다음 150kWh까지	214.6
	450kWh초과 사용	7,300	450kWh초과	307.3

* 기타계절: 1월 1일 ~ 6월 30일, 9월 1일 ~ 12월 31일 / 하계: 7월 1일 ~ 8월 31일
* 슈퍼유저요금: 동계(12월 1일 ~ 2월말일), 하계(7월 1일 ~ 8월31일)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은 736.2원/kWh 적용
* 출처 : 한국전력공사 사이트

주택용 (고압)				
구분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구간	금액	구간	금액
기타계절	200kWh이하 사용	730	처음 200kWh까지	105.0
	201~400kWh이하 사용	1,260	다음 200kWh까지	174.0
	400kWh초과 사용	6,060	400kWh초과	242.3
하계	300kWh이하 사용	730	처음 300kWh까지	105.0
	301~450kWh이하 사용	1,260	다음 150kWh까지	174.0
	450kWh초과 사용	6,060	450kWh초과	242.3

* 기타계절: 1월 1일 ~ 6월 30일, 9월 1일 ~ 12월 31일 / 하계: 7월 1일 ~ 8월 31일
* 슈퍼유저요금: 동계(12월 1일 ~ 2월말일), 하계(7월 1일 ~ 8월31일)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은 601.3원/kWh 적용
* 출처 : 한국전력공사 사이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0호로 공고하였습니다.
(시행 2024년 7월1일)

■ '선금의 부채 제외' 세부내용

○ (적용대상) '24.12.31까지(입찰공고일 기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선금대상)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 (평가항목) 부채비율, 유동비율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 선금지급 시 주의사항

○ 기성금 지급 후 추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선금보증서 등 추가 채권확보 반드시 필요

■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적용기한
선금 지급	지급대상	(기존)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특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구매 계약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 ※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분할납품을 통한 기성대가 지급 우선 활용 등	`24.12.31. (신청일 기준)
	지급시기	(기존)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착수 이후 선금 지급 (특례) 이행 착수 지연과 관계없이 선금 지급	
	계속비 사업	(기존) 계약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수년간 사업이행을 하는 계속비계약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이월사업	(기존) 계약체결 후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추가지급	(기존) 기성금 지급 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미지급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추가 선금지급 가능 (특례)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원가	계약심사	(기존)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3억원, 기타공사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특례)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5억원, 기타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공사적격 심사	재무비율 평가	(기존) 최근연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및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등급별 평점 등으로 평가 (특례)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 ※ 세부내용은 아래 설명 참고	`24.12.31. (입찰공고일 기준)

팔공산 자락의 청정자연 속 쉼터
자연의 풍요로움과 배움의 성장
교육과 힐링의 중심 대경교육원

대경리조트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신의 교육시설 및 편안한 쉼터의 숙박시설, 양질의 식사, 각종 체육 ·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경북 경산시 와촌면 (청통와촌IC에서 5분 소요)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수려한 주위 경관과 잘 어우러져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대경리조트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766.1368
Home Page: www.dghrd.co.kr

인터뷰

김하수

경상북도 청도군 군수

Profile

1959년 02월 09일 청도 출생

2022년 07월 ~ : 민선8기 경북도 청도군 군수(민선8기 11대, 55대, 현)

: 제11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11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2018년 07월 : 제11대 경북도의회 의원

: 제9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9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행정학과 겸임교수

국립상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대구보건대학교 외래교수

영남일보 칼럼리스트

월간"빛"칼럼리스트

경북사회복지협의회 교육·훈련 위원회 위원장

대구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

광주대학교(신문방송학 학사)

오성고등학교 졸업(24회)

모계중학교 졸업(16회)

용산초등학교 졸업

소통과 변화, 섬김의 군정 추진으로 청도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 속에서 살고 싶은 새로운 청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김하수 청도군수

산천청려(山川淸麗) 대도사통(大道四通), 산수가 맑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진 사통팔달의 고장 청도는 영남사림학맥 선비정신의 역사적 기반 위에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4차 혁명시대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품질 친환경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혁신과 지역 자생력을 높인 지역 경제활성화로 세대를 아우르는 살고 싶은 행복도시 및 문화와 예술, 그리고 휴양, 치유와 힐링의 관광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은 김하수 군수님은 「청도를 새롭게 ! 군민을 힘나게 !」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8기를 출범하며 ◇청도평생학습행복도시,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농업 대전환이라는 3대 미래비전과 ◇혁신하는 친환경 농업도시, ◇살고 싶은 행복한 복지도시, ◇성장하는 상생의 균형도시, ◇매력적인 고품격 관광도시, ◇변화하는 창의적 교육도시라는 5대 군정전략을 표방하며 열정적 리더십으로 변화와 혁신의 군정을 힘차게 펼쳐왔다.

군민과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군정을 펼치며 역량을 집중한 김하수 군수님은 청도군이 ◇2023년 경북도 자원봉사 우수시군 평가 최우수, ◇2023년 건강마을 조성사업 해피댄스 시범사업 운문면건강마을 최우수, ◇2023년 경북도 새마을종합평가 우수, ◇2023년 경북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종합평가 최우수, ◇2023년 지역경제활성화 최우수, ◇2023년 지역활성화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 환경대상 대상(4년연속) 등을 수상하게끔 하는 수많은 성과를 발휘하게 하였다.

'민선 8기 남은 기간에도 석전경우(石田耕牛), 돌밭을 가는 소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우직하게 군정을 일구어 나가겠다'는 김하수 군수님과 군정 성과와 역점사업 및 시책, 미래 비전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 민선 8기 군수직을 수행하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나?

A 민선 8기의 핵심 키워드는 ◇평생학습행복도시, ◇문화예술관광의 허브도시, ◇농업의 대전환으로 청도군의 「3대 미래 비전」입니다.

농촌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저소득, 그리고 후계자 부족 등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문화예술관광의 자원화, 농업의 혁신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기 내 「3대 미래 비전」의 현실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3월 「청도평생학습행복관」을 개관하여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생애주기별로 군민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대학과 대학원, ◇어르신들을 위한 온누리대학, ◇행복아카데미, ◇검정고시반 등 주민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한의대학교 내 지역 맞춤형 인재 발굴을 위해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를 개설하여 미래 청도의 혁신을 이끌어 갈 인재를 직접 발굴하고 양성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제11회 경상북도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여 청도만의 특색있는 평생학습문화를 도내 적극 홍보하고 박람회에 참가하는 동아리, 민간 단체 등을 통해 경북을 넘어 전국 단위의 평생학습 교류의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관광의 허브도시」를 조성하고자 ◇700석 규모의 공연장인 아트홀과 수영장을 갖춘 「청도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예술인들이 안정적로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거점 공간인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사업」 추진, ◇청도 유천문화마을 조성, ◇운문사 역사문화관 조성, ◇성곡댐 생태관광벨트 조성 및 산림치유힐링센터 건립 등 문화예술과 관광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문화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의 대전환」을 통한 군민 모두가 희망을 꿈꾸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영농, 기술 영농, 과학 영농을 통해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농업의 대규모화와 첨단화를 추진하기 위해 혁신농업타운을 조성하고 농업이 청년의 미래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동 영농화사업 등 혁신적인 기술도입과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Q 청도는 대구 대도시권과 인접해 있으면서 부산·울산권과도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이 있다면?

A 청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구 광역도시권과 경산·영천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교통망으로 연결된 영남권 최대 교통의 요충지이자 중심지로서 봄에는 한재 미나리, 여름에는 복숭아, 가을은 청도반시 등 사시사철 생산되는 농산물로 많은 관광객이 북적이는 고장이다.

이러한 지리적·환경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 592억 원을 투입하여 마령재 터널개설, ◇청도매전~울주 상북간 도로 개설, ◇경북~대구(보훈병원) 터널 개설, ◇도시 광역철도망(경산~청도) 연장 등 보

다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여 인근 도시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청도·경산 대중교통 버스 연계, ◇대구버스노선 청도연장 추진, ◇대구·경산·영천 등 인근 8개 지역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도 도입 등 관광객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소멸 내지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청도군의 지방소멸에 대처하는 인구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A 교육, 정주환경, 일자리 등의 이유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도군만의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은 「청년이 머무는 청년 활력 도시, 청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일자리·창업, 주거, 복지·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을 조성하는 「청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부터 창업과 지역인재 발굴을 연계하는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미취업 청년들이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통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월 10만원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2% 지원사업」, 그리고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외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운영 외에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청년문화예술 패스」, 청년 친화 정보교류 공간인 「청도 상상마루 조성사업」 등 복지·문화 분야에 대한 사업은 물론 청년 농업인의 귀농귀촌을 독려하기 위해 농업 과학기술 역량 향상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Q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성장을 주도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A 전 세계에 진출한 한인상공인들이 한국에서도 멋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격진료센터, 커뮤니티 센터 및 문화복합시설이 갖추어진 명품 전원주택단지 「청도 인터내셔널 유 빌리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개최된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많은 경제인을 대상으로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첫선을 보였고, 많은 이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내 청도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의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사업비 3,200억 원의 「청도 자연드림파크」 조성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 식품단지와 농식품 물류시설을 갖춘 지역거점 정주기반 시설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7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공모하여 총사업비 396억 원을 투자하는 「청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주택 50호와 취·창업지원센터, 수변공원과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함으로써 지역거점 정주기반 시설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청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3%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도군만의 노인복지 사업이 있다면?

A 청도군은 100세 시대 「노인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세심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일상생활 속 작은 불편 사항들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660여 명을 선정하여 공무원 1대 1 맞춤형 복지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사업, ◇7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시행, ◇경로당 실버카 주차장 조성,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 ◇미등록 경로당 지원사업 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청도는 영남권 대표 문화관광도시이다. 지난해 청도군은 관광 9경을 선정하였는데, 그 소개를 한다면?

A 지난해 7월 「청도 관광 9경 선정위원회」를 통해 자연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등 최신 관광 트랜드를 반영한 「청도 관광 9경」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청도군 관광지 분석을 토대로 역사성, 상징성, 상품성, 주변 편의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청도관광 9경」은 ◇제1경 청도읍성, ◇제2경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제3경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제4경 운문사, ◇제5경 섶마리 한옥마을, ◇제6경 낙대폭포, ◇제7경 유등연지, ◇제8경 와인터널, ◇제9경 청도 레일바이크 등입니다.

올해 3월부터 「타박타박 걸어서 이달의 청도 관광 9경」이라는 제목으로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청도 관광 9경 도보 탐방 관광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여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도보 탐방 관광프로그램은 매월 청도 9경 중 한 곳을 선정하여 회차별 선착순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도여행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청도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청도가 문화예술관광의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A 청도군에는 다양한 명품 축제들이 많이 열립니다. 대표적으로 ◇반시축제, ◇세계코미디아트패스티벌, ◇소싸움 축제, ◇정월대보름 축제, ◇청도읍성예술제 등 매년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도의 독특한 매력을 담은 청도 관광 9경을 지정했고, ◇읍면별 특색 있는 음악회 개최, ◇웹드라마 제작, ◇유천근대문화마을 조성 등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역대 방문객 수가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 모두가 책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청도신화랑풍류마을 환경개선 사업, ◇성곡댐 생태관광벨트 조성, ◇산림치유힐링센터 조성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청도읍성 경관 개선 사업, ◇운문사 역사문화관 건립, ◇차산농악 등 무형유산 전승·보존 등 과거와 미래가 융합된 미래 문화 유산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인근 대도시 거주 인구 유입을 통해 생활·관계 인구 확대를 통해 청도군이 명실상부 영남권 최고의 문화예술관광 허브 도시로 멋스럽고 울림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Q 청도가 문화예술관광의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A 청도군에는 다양한 명품 축제들이 많이 열립니다.
대표적으로 ◇반시축제, ◇세계코미디아트패스티벌, ◇소싸움 축제, ◇정월대보름 축제, ◇청도읍성예술제 등 매년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도의 독특한 매력을 담은 청도 관광 9경을 지정했고, ◇읍면별 특색 있는 음악회 개최, ◇웹드라마 제작, ◇유천근대문화마을 조성 등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역대 방문객 수가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 모두가 책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환경개선 사업, ◇성곡댐 생태관광벨트 조성, ◇산림치유힐링센터 조성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청도읍성 경관 개선 사업, ◇운문사 역사문화관 건립, ◇차산농악 등 무형유산 전승·보존 등 과거와 미래가 융합된 미래 문화 유산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인근 대도시 거주 인구 유입을 통해 생활·관계 인구 확대를 통해 청도군이 명실상부 영남권 최고의 문화예술관광 허브 도시로 멋스럽고 울림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한 말씀을 한다면?

A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슬로건으로 오직 군민행복과 청도발전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민선 8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문화예술관광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과 군정 역점 추진 과제인 ◇평생학습 행복도시 조성, ◇문화·예술관광의 허브도시 조성, ◇농업의 대전환이라는 「3대 비전」을 반드시 실현 시키고자 비록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변화와 혁신으로 청도군의 미래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라는 믿음으로 오직 청도군민과 청도발전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군민이 더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청도의 미래를 위해 개신창래(開新創來)의 자세로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청도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편집국

자연과 문화가 숨쉬는

청도 관광 9경

청도로 구경가자!!

청도군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청도 문화관광 홈페이지

국내유일 합법 사행산업인 전통 소싸움 경기사업을 운영하는

청도군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이은희)는 2003년 설립된 청도군의 지방공기업으로서 국내 유일의 합법 사행산업인 전통소싸움경기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청도 소싸움경기사업은 전통민속 소싸움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목표로 베팅산업으로 발전시켰으며, 2011년 개장 이래 꾸준히 청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개장 10주년인 지난 2021년부터 제2의 도약을 위해 청도 소싸움경기사업의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번째, 2022년도에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1본부 2실 6부로 개편하였다.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ESG경영의 확대와 사행산업사업자로서 지역사회공헌을 정례화하기 위해 사회공헌부를 신설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였다.

조직 개편을 통해 사회공헌부를 신설함과 동시에 공헌활동을 정례화하여 매년 6가구 이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른 공경을 되새기기 위해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식사를 대접하고,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의 도박중독예방을 위해 과몰입예방 프로그램,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건전 문화로써 소싸움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두번째, 온라인 우권 발매를 위해 변화를 시도 중이다. 동일한 사행산업인 경마, 경륜, 경정, 나눔로또, 스포츠토토 등은 현재 온라인을 통해 베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청도소싸움경기는 현장에 방문해야만 베팅을 할 수 있다.

이에 청도소싸움경기도 온라인을 통해 우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발매전산시스템의 교체 및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번째, 소싸움경기의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다. 소싸움경기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민속경기로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이어져 온 전통문화다. 이에 소싸움경기를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앞장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소싸움경기 시행과 싸움소의 보호를 위해 싸움소 보호 규정 제정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청도소싸움경기장 방문객 연령층의 다양화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증가됨에 따라 싸움소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싸움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동물보호 개념을 싸움소에 적용하여 싸움소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이를 명문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국내 사행산업자 중 가장 규모가 작고 사업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만큼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소싸움의 성장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내 소싸움경기를 해외에서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청도 소싸움미디어체험관

전국 대표 소싸움 행사가 열리는 청도군은 청도 소싸움미디어체험관을 개관했다.
관람객들에게 소싸움 문화를 제대로 이해시키고, 실감콘텐츠 기술이 결합된 영상으로 소싸움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다.

체험관은 기존 소싸움테마파크를 리모델링해 ◇소싸움 역사문화관, ◇4D영상체험관, ◇어린이체험관, ◇청도홍보영상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소싸움경기장 옆에 있어 아이와 함께 소싸움미디어체험관을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매주 월요일 휴무로 09:30부터 17:30까지 개장된다.
관람료는 현재 유료(소액)로 운영된다.

방문객들이 소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고 청도 소싸움의 매력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도소싸움 경기장, ◇와인터널, ◇군파크루지, ◇청도프로방스 등 인근 관광지와 함께 청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현 기자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단

청도군은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미래 비전을 실천하고자 쉼 없이 달려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자연드림파크 조성사업 본격 추진과 지역 활력타운 등 대형 공모사업선정으로 활력 있는 청도 건설을 위한 확실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청도군은 지난 2020년 유치에 성공한 아이쿱소비자생협연합회의 자연드림파크 일반산단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2월 18일 경북도, 청도군, 그리고 아이쿱소비자생협연합회는 경북도청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상호지원을 통해 각 기관이 관계 법령과 규정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자연드림파크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두곡리 일원에 ◇면적 295,166m², ◇사업기간 2021년부터 2027년, ◇총사업비 3,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600, 민간 2,500)으로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지원시설과 주거시설의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업단지로 ◇식·음료 제조업 산업시설과 ◇식품안전검사센터, ◇체험공방, ◇치유센터, ◇한의원, ◇호텔·레스토랑, ◇스포츠센터, ◇항암연구소, ◇도서관, ◇극장, ◇카페, ◇기숙사 등이 입주하게 된다.

2023년 6월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하고, 측량 및 지장물조사를 거쳐 한국부동산원에 토지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11월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총면적의 36.5%에 해당하는 10만7,808m²는 산업 및 물류시설 용지로 지정되며, 아이쿱이 위탁 생산하고 유통하는 친환경 유기식품의 제조와 물류시설이 입주하게 된다. 지원시설용지 5만7,482m²와 주거시설용지 1만201m²에는 호텔과 영화관 등의 종합문화시설 단지와 고용인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기숙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공원 및 녹지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공원 및 녹지·하천의 면적이 4만8,672m²로 전체 면적의 16.5%에 달한다.

청도군은 산단 조성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그리고 주거시설용지 및 주차장 전부를 아이쿱에 분양하기로 했다. 사실상 가처분 용지 전부를 분양완료한 셈이다. 협약 당시 입주를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총 15곳으로 모두 아이쿱 관계 기업이며, 이들 업체 대부분은 충북 괴산과 전남 구례의 기존 자연드림파크에도 입주해 영업중인 기업들이다.

충북 괴산 자연드림파크 전경

생산, 유통 소비가 집약된 아이쿱은 소비자, 생산자, 입주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4개 그룹으로 조직된 비영리법인으로 전국 100개 회원조합에 조합원이 31만여명에 이른다. 전국 253개소 자연드림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연 매출이 6,500억원에 달하는 등 전국 최대 생협 조직이다.

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의 자연드림파크가 전남 구례와 충북 괴산에 이어 3번째로 청도군에 영남권의 농산물 가공 및 유통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자연드림파크 산단조성사업은 농업 부문 외 연구개발, 물류, 의료, 숙박, 체험 등 대단위 라이프케어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로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관광객 유치로 생활인구까지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신동력이 될 것이다.

청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청도 지역활력타운 조감도

2023년 6월 청도군은 지방시대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등 7개 정부부처 합동 공모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등을 지원받게 되었다.
청년의 여유와 공동체 삶을 위한 무릉도원 「청(춘)려(유) 도원(DO-ONE)」이라는 부제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정부 프로젝트로 특히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 필수 생활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게 특징이다.

2026년까지 화양읍 범곡리 일원 ◇면적규모 38,889m², ◇사업비 396.18억원(국비 171.8, 지방비 149.38, 기타 75)을 들여 ◇임대주택 30호 및 분양주택 20호의 주거시설, ◇취·창업지원센터,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수변공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동안 경북도개발공사,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사)경북시민재단, ㈜엠와이소셜컴퍼니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 및 민간체계를 구축했다.

정부의 평가과정에서도 청도군이 지닌 천혜의 자연환경과 영남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강점, 의료·복지·문화·체육 등 생활 인프라와 인입지,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성, 청도자연드림파크 연계 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정부와 함께 대응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청도군에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체계가 구축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국

본보는 음식명가 코너를 통해 고객과 독자의 입장, 맛 그리고 서비스 수준을 심층 분석한 데이터로 지역 음식점을 알려 나가고 있다. 음식 명가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재단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이 객관적 평가지표로 제시한 서비스 품질 측정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 및 의사소통 등 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유형성'을 비롯해 서비스의 철저함 등으로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는 '신뢰성', 서비스 제공 의지를 나타내는 '응답성', 직원의 능력과 예절, 업체의 신용도, 안정성 등을 뜻하는 '확신성', 접근가능성과 고객 이해 등을 내포한 '공감성'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실시한 평가 결과, 경북 경주시 교촌길 39-9에 위치한 '진수성찬'이 그 영예를 안았다.

건강한 식자재에 정직함과 정성을 담아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최고의 행복을 선사하는 "황토추어탕"

청도읍 고수리317, 큰길에서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한옥과 어우러진 건물 앞뜰에 정겨운 감나무 서너 그루가 음식점을 어루만지며 고즈넉하고 깔끔한 전경으로 손님을 반기는 추어탕집이 있다. 김수현 대표(68년생)가 운영하는 "황토추어탕"이다.

청도는 대표적 (특)산물로 씨없는 반시감, 감말랭이, 복숭아, 버섯, 한재미나리 등이 유명한데, 추어탕도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청도 추어탕(鰍魚湯)의 역사는 1963년부터 시작되었다. 지금은 청도읍 고수리 청도역 인근에 여러 개의 추어탕 음식점이 밀집해 추어탕 거리를 이루고 있다.
청도추어탕은 주로 미꾸라지에 자연산 민물잡어를 섞어 만들기 때문에 담백하고 시원한 맑은 국물이 특징이다.

황토추어탕의 대표메뉴 추어탕은 일반적인 청도추어탕과는 달리 미꾸라지만 사용한다. 김대표는 음식재료에 대한 고집과 음식맛에 대한 철학으로 재래식 방식을 고수해오고 있다.

추어탕의 주재료인 미꾸라지는 전라도에서 공수해 오는 살아있는 황토 먹인 국내산 미꾸라지만을 고집하며, 재료 본연의 맛을 내기 위해 육수는 따로 쓰지 않는다.

국물의 맛은 부재료인 단배추, 토란 등과 어울려 양파로 황금비율의 배합을 이루면서 대파, 마늘, 들깨 등을 첨가하여 참나무 장작불로 가마솥에서 푹 고아 미꾸라지의 비린내도 잡고 재료 본연의 맛에 감칠맛이 더해진 국물맛을 만들어 내고 있다.

미꾸라지 해감에도 3~5년 된 간수 뺀 소금을 사용하며, 가마솥에서 푹 삶은 미꾸라지를 소쿠리에 일일이 직접 손으로 으깨어서 사용하는 재래식 방식을 고수해 오고 있다.

추어탕이 원기회복에 뛰어나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성인병 및 다이어트에도 좋으며, 특히 칼슘이 풍부해 눈과 뼈건강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듯, 황토추어탕은 미꾸라지의 뼈까지도 거의 버리지 않고 음식에 손님들의 건강까지 담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황토추어탕에는 추어탕에 곁들이는 다진 마늘과 고추, 제피(산초)가루가 제공되는데, 녹색을 띠는 제피가루는 주인장이 일일이 씨앗을 제거하는 정성을 들여 그 맛이 또한 고급지고 향이 뛰어나다.
추어탕에는 어묵볶음, 고추잎무침, 김치, 콩나물무침, 부추가지볶음 등 5가지의 반찬이 제공된다. 제철 채소로 만드는 반찬은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반찬이 모두 다 정갈하고 손님들의 입맛을 돋군다. 황토추어탕 김대표의 솜씨좋은 손맛과 정성이 가득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청양고추를 가미해 느끼함을 잡고, 얼음물로 반죽해 더욱 바싹하고 고소한 미꾸라지 튀김과 함께 색다른 메뉴인 추어만두는 별미인데, 고소하고 입에 짝짝 달라붙는 그 맛이 일품으로 추어탕과 함께 손님들이 많이 찾는 메뉴이다.

황토추어탕은 시어머니께서 10년 동안 일구어 온 것을 김대표가 이어받아 20년째 운영하며 스토리를 간직한 사랑받는 음식점이다.
김대표는 시어머니의 음식솜씨와 친정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 음식에 진심으로 좋은 식재료에 대한 고집과

정성을 더해 최고의 맛과 영양으로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대표 음식명가로 자리매김하고자 온 힘을 쏟고 있다.

김대표는 항상 방문하는 손님들과 지역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소외된 지역민을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배봉사 등 지역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고, 국제라이온스협회 경북지구에 가입해 사회봉사에도 열심히 활동중이다.

지역사회봉사와 기부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표창, 국회의원과 청도군수 표창까지 수상하기도 했다.

김대표는 "지금까지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지금의 자신과 황토추어탕이 있다"고 얘기한다. 지역사회 환원에 열과 성을 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대표는 "청도 운문사 기도도량 사리암에서 자주 기도를 들이는데, 기도 마지막에는 항상 황토추어탕에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행복하게 늘 웃을 수 있기를 기도 드린다"고 말한다.
손님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늘 안고 살아가는 김대표의 앞날 서쪽하늘엔 늘 무지개가 떠 있으리라.

편집국

청도기행

청도(淸道)는 "산천청려(山川淸麗) 대도사통(大道四通)" ~ '산수가 맑고 아름다우며, 큰길이 사방으로 나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청도는 한국 현대사에 있어 농촌근대화의 의식 개혁 운동이자 생활 환경개선 운동인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이면서도 충의 열사와 많은 문인이 배출된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이기도 하다.

청도의 선비 탁영(濯纓) 김일손과 소요당 박하담 이야기

김일손(金馹孫, 1464~1498)은 청도군 상북면 운계리 소미동에서 태어났다. 자는 계운(季雲), 호는 탁영, 본관은 김해이다.
조부인 김극일은 불사이군의 절의 조선성리학의 원류 길재(吉再)에게 수학하였고, 부친 김맹 역시 김종직의 부친 김숙자에게 학문을 배웠다. 김일손 또한 점필재 김종직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니 김일손 가문은 정통 영남사림파의 중심에 있었다.

1498년(연산군 4) 춘추관 사관으로 있으면서 스승인 영남사림학파의 종조(宗祖)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사초에 실었던 것이 발단이 되어 무오사화가 일어나며 훈구파에 의해 극형에 처해졌다. 꺽이지 않았던 그의 직필(直筆) 정신은 짧은 생애에도 후대까지 그를 널리 기억하게 된다.

사림파의 젊은 기수로서 훈구파의 전횡에 맞섰던 김일손은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삶은 사림파의 성장이라는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훈구파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상과 정치이념으로 부상한 사림파의 선봉에 서서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언관과 사관 활동으로 부조리한 현실에 적극 맞섰다.
김일손처럼 행동하는 사림파의 모습은 훗날 조광조에게도 이어졌고 네 번의 사화에도 불구하고 사림파가 결국 역사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사림파의 도도한 성장에 훌륭한 자양분을 마련해준 선비 김일손, 그가 배향되어 있는 자계서원을 찾아 붉은 시냇물처럼 타올랐던 김일손의 붉은 마음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자계서원(紫溪書院)은 청도군 이서면 서원리에 있는 서원이다. 경북도 유형유산 제83호로 지정되어 있다. 3칸의 묘우(廟宇), 신문(神門), 5칸의 강당, 각 3칸의 동재(東齋)와 서재(西齋), 영귀루(詠歸樓) 등 12동의 건물과 천운담(天雲潭)과 탁영대(濯纓臺) 등이 있다.

무오사화로 생을 마감한 김일손이 처형당할 때 냇물이 별안간 붉은 빛으로 변해 3일간 흘렀다고 하여 '자계(紫溪)' 라는 이름이 붙어 '자계사' 가 되었다가 사림정치가 본격적으로 구현된 선조대에 '자계서원' 으로 승격되었다.
김일손의 추숭작업에 힘쓴 조카 김대유(1479~1551)는 청도의 사림들과 자계사를 건립하고, 숙부의 뜻을 받들어 처사의 삶을 살아가며 김일손의 유고를 판각하고 연보를 편집하였다. 김대유는 경상좌도 퇴계 이황과 조선성리학의 양대산맥을 형성했던 경상우도 사림의 종장인 남명 조식이 존경했던 인물로 김일손의 사림파 정신은

김대유를 거쳐 조식으로 이어지면서 영남사림파의 학맥에서 큰 분수령을 이루었다.

선암서원(仙巖書院)은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에 있는 경북도 유형유산 제79호로 지정된 서원이다. 동창천을 따라 배를 타고 오가며 친교한 삼족대 김대유와 소요당 박하담을 모신 서원으로 선조원년(1567)에 매전면 동산동에 두분의 위패를 모시고 '향현사'라고 하다가 선조10년(1577)에 지금의 위치로 옮기고 선암서원이라 하였다.
삼족대와 선암서원(소요당) 당시에는 다리도 길도 없고 오로지 깊고 푸른 동창천을 따라 뱃길로 다니는 것이 최상이었다.
밀성(밀양)박씨는 신라 박혁거세의 후손들로 조선 초기 청도 이서지역에 살던 박하담의 할아버지가 식솔을 이끌고 청도 금천 섶마리(지금 신지리)로 옮겨와 세거하여 오고 있다.

운강고택과 만화정

운강고택(雲岡故宅)은 소요당 박하담(朴河淡,1479~1560)이 낙향하여 서당을 짓고 후학을 양성하던 터에 후손인 성경당 박정주(朴廷周,1789~1850)가 분가하면서 살림집을 건축한 것이 이 고택의 시작이다.
박정주의 아들인 운강(雲岡) 박시묵(朴時默,1814~1875)이 고택을 크게 중건하여 이후 그의 호를 따서 운강고택이라 부른다.

운강은 후학양성에 크게 주력하여 고종 9년(1872) 「강학소절목」을 마련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뚜렷이 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운강고택은 안채와 사랑채가 별도로 ㅁ자형으로 되어 쌍ㅁ자형을 이루고 있는 대주택으로 안채, 사랑채, 중사랑채, 행랑채, 대문채, 곳간채와 가묘를 갖추고 있는 등 건물규모가 5,850㎡, 건축물 9동에 80칸이나 된다.
짜임새 있는 구조와 필요에 따라 세분된 각 건물의 평면배치 및 합리적인 공간구성 등이 조선 후기 상류 주택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다.
만화정(萬和亭)은 조선 후기 본가와 떨어진 경관 좋은 곳에 건립한 정자이면서 사랑채의 연장선, 강학소의 역할을 하였다. 919지방도로를 타고 금천교를 넘어서면 신지리가 시작되는데 금천교를 지나면 왼쪽 강 언덕위에 만화정이 수려한 풍광을 뽐내며 숲 사이에 서있다.
만화정은 1856년 운강 박시묵이 후학 양성을 위해 건립한 정자로 정자 주변의 바위와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자연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살렸다. 정자 앞에 큰 그늘을 만들어내는 수그루의 떡버드나무가 정자의 수호신처럼 버티고 서있어 고색의 품격을 더하고 있다.

빼어난 경관을 시로 남기는 것이 조선 선비의 미덕이다. 절도사 윤선웅이 이곳에 와 맑은 물을 보고 감탄했다. 아침에 동창천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보고 무릎을 쳤고 만화정에 가득한 봄날의 난초를 보고 행복했으리라.

만화정은 6.25전쟁때 피란민 20여만명이 동창천에 몰리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청도를 방문했다가 하룻밤 묵고 간 곳이기도 하다. 운강고택과 만화정은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06호이다.

편집국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와 선거 예측

18세기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화 혁명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이후,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인 2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의 혁명을 거쳐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 등 첨단 정보통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4차 산업혁명 시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성, 초지능화, 초융합으로, 특히 개인이 소형 이동 통신기기와 이동통신기술과 연결되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새로운 형태의 광대한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데이터들은 기존의 데이터보다 방대하고 형태가 일정하지 않기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수집, 저장 및 분석이 힘든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빅데이터(Big Data)라고 한다.

빅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빅데이터는 일상생활에서 기록으로 남기는 글, 사진, 비디오 외 우리가 잠을 자고 있거나, 걷고 있거나, 운전을 하거나, 쇼핑을 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모든 행위들의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심지어, 개인의 휴대폰을 통해 기지국 접속하여, 카드 사용을 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쇼핑성향을 파악,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통해 관심 방문지 및 개인 위치등을 빅데이터로 저장·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개인, 기업,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 결과 예측의 혁명적 수단 빅데이터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본격적으로 선거판에서 사용하게 된 때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시즌이였다.

그 당시, 선거의 전체적인 우세는 민주당의 힐러리가 높았으나, 힐러리 캠프는 디지털 선거전에 관심이 없었던 반면, 전체적인 선거 판세의 약세였던 트럼프 캠프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 동영상 광고에 막대한 물량 공세를 펼쳤다.
영국의 빅데이터 컴퍼니 케임브리지 에널리티카(CA)의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선거전을 통하여 트럼프에 대한

투표 의향은 3.9% 높아진 반면, 힐러리에 대한 투표 의향은 4.9% 낮아져 트럼프의 승리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투표결과에서도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즉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 등에서 힐러리보다는 트럼프 검색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트럼프에 대한 관심도가 힐러리에 대한 관심도보다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유선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에서는 힐러리 캠프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기 때문에, 큰 망신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선거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은 선거 판세를 읽는 유력한 참고자료로 여겨진다.

구글 트랜드는 특정 기간에 특정 대상의 검색량을 0~100으로 수치화한 상대적인 비교 결과인데, 대중들의 관심의 정도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단지 「참고용」으로 살펴야지 실제 결과로 유의미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경계 해야된다.

한 예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안철수 후보는 구글 트랜드 검색량을 통해 본인이 당선될 것으로 예측을 하였으나, 실제 대중들이 어떤 것을 검색하는지 「의도」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 하지 못했다.

이것은, 네거티브한 선거에서 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으로도 다수 검색을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승리하였다.

사회현상 예측의 보편적 모델이 된 빅데이터

빅데이터분석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이미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이다.

실제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효율적인 분석법이지만, 가치있는 데이터를 측정함으로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기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라든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처리를 하는 분석가의 의도에 따라서도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정성적인 분석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사회 전반적인 현상을 확인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1차적인 데이터 분석을 넘어 숨은 의도까지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박균익 연구위원

주식투자와 동학개미 엑소더스(exodus)

연초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
단순히 코스피 시장의 낮은 수익성 때문만은 아니다.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과 여론을 등한시하는 제도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다.

주식시장 불나방이 된 개미들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미가 큰 폭으로 증가해 주식시장에서 주요 참여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팬데믹으로 증시가 폭락했지만 2020년 3월 이후 주요 국가의 금리인하 기조가 이어졌고,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주식투자가 크게 늘었다.

팬데믹 시기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매도에 나섰고, 이에 맞서 개미들은 매수에 뛰어들면서 증시를 떠받쳤다. 「동학개미」(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이유이다.

실제로 주식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2019년 9조 3,000억원에서 2021년 27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주식시장 활동계좌수도 2020년에서 2021년 크게 증가해 2023년 11월 기준 6,870만개 수준에 달하였다. 거래대금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3.3%에서 2023년 11월 67.8%로 증가했다.

코스피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소유주식수 비중은 2018년 33.4%에서 2022년 37.9%로 확대됐고, 코스닥시장에서의 비중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4050에 집중돼 있던 개인투자자의 연령대가 젊은층으로 확산했다. 실제로 20대의 주식투자 바람으로 30세 미만 투자가 비중은 2018년 7.4%에서 2022년 17.9%로 크게 늘었다(자료: 하나금융연구소).

동학개미 바람은 실물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산 증식에 대한 절박함이 직접투자로 이어졌던 것이다.
노동과 저축만으로는 자산 증식이 어렵다는 인식이 퍼졌고, 2020년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의 양극화도 심해지면서 절망한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으로 몰렸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계획한 2030세대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대참사로 노동의 욕이 상실되었고, 세상에는 어느 날부터 「영끌」, 「하우스푸어」, 「패닉바잉」 등 신조어가 난무하면서 「벼락거지」에 대한 우려와 강박관념으로 주식 등 새로운 투자처에 열광했다.
기술발달로 휴대폰을 통해 간편하게 주식투자가 가능해지고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직접투자 심리가 확산하였다.

자산소득의 소망과 투자수단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빈자일수록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부자일수록 근로소득이외에 자본소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며 자산 증식을 위한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을 동원한다. ◇가장 많이 알려지고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주식투자, ◇안정성을 추구하는 채권투자,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강한 부동산투자, 그리고 ◇가격 변동성과 투자 위험성이 매우 큰 디지털자산인 암호화폐 등이 대표적인 투자방법이다.

이러한 투자 수단은 각자의 장단점과 위험성이 존재하며,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을 명확히 이해하고 여러 투자 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와 정보 수집을 통한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한다.

흔히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과거의 가격 움직임을 분석하여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기업의 재무제표, 산업동향 분석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며, 기업의 성장가능성, 수익성,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주식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고, 기업의 수익성이 높고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택하여 투자자의 투자목표, 투자기간, 위험수준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추구하며 위험을 분산하는 투자방법이 요구된다.

통계에 따르면 개미들의 80%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원금조차도 보존하지 못한다고 한다. 주식시장 3대 투자 주체 중 하나인 개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선 호구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증시의 문제점

◇글로벌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급격한 변동이 자주 발생한다.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낮아 투자자 신뢰를 저해할 수가 있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 이들의 매도세가 주가에 큰 영향을 준다. ◇정책리스크로 정부의 규제 및 정책변화가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이 주가에 불확실성을 더한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해칠 수 있고 이는 일반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배당금 지급보다는 내부 유보금을 늘리는 경우가 많고 주주보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중시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당금이 약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한국증시에서 태생적으로 개미들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개미들은 전 세계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일학개미, 불개미 등의 신조어가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는 필패(必敗)

주식시장도 좋은 매도매수 타이밍이 중요한데, 개미들은 적절한 매매시간대를 잘 알지 못해 정확한 근거 없이 매매를 결정한다.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 비해 정보를 습득하는 시차가 늦기 때문에 늘 뒷북을 치기 마련이다. 해당 종목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도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원칙 없는 매매를 일삼는다. 그리고 허황된 목표수익률을 꿈꾼다.

주식시장은 누군가가 돈을 잃으면 다른 누군가가 돈을 벌어가는 제로섬 게임의 장이다.
개미는 결코 자본조달력, 정보력, 매매기술 등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을 이길 수 없다
단기투자, 테마주에 집중하는 투자의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사회적문제로 리딩방에 의한 주식투자로 피해를 보는 개인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지 않는가.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의 정석

OO증권관계자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호구가 되지 않고 3대 투자 주체로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시장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학습과 자기계발 노력을 견지하고, 투자목표와 예산의 설정을 통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및 시장에 대한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동학개미의 엑소더스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원의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입장이나 국회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관해서는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목소리의 경청이 필요한 시점이다.

투자의 핵심은 성급한 예측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여 변하지 않는 패턴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왕도는 없다. 끊임없는 공부로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만이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명심하자.

편집국

청도군의회 의원
청도군의회 의장 **전종율**, 부의장 **박성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생활 주변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가 늘어나고 중앙정부의 권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의장 전종율

부의장 박성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의사 결정을 하는 의결 기관인 지방의회와 의결 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집행기관인 지방 자치단체장이 헌법상으로 보장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18조).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1995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확립되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지방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며, 지방자치 단체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을 견제 및 감시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지위와 관련하여 지방의회는 자치행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지방 행정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지방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 등을 한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청도군 의회 의원들과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제9대 청도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오른 전종율의원(66년생, 재선, 국민의힘, 청도군 가선거구)이다.
전의장은 계명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청도군 새마을회 사무국장, 청도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경북도 새마을회 운동지원과장, 제8대 청도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경력을 쌓아 왔다.
2020년 경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며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의정활동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청도군의회 재선의원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중심의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주요 입법활동은 ◇청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안, ◇65세이상, ◇6개월 이상 거주 주민에 대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전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의장 당선소감을 통해 "먼저 의장 선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청도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

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중한 뜻을 받들어 더욱 더 신뢰받은 의회, 비전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힘과 뜻을 모아 군민을 위한, 군민의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의정활동에 대한 다짐과 포부를 밝혔다.

제9대 청도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된 박성곤의원(84년생, 국민의힘, 청도군 나선거구)은 영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생 안보방송국 리얼코리아 TV를 설립하며, 청도청년회의소(JCI) 상임부회장을 역임하였다.

2024년 대한민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며 젊은 패기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더욱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달려오고 있다.

주요 입법활동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문화계승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의 청도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군민의 치매 예방, 치매환자 및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여가활동 보장 및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박부의장은 제9대 청도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당선소감을 통해 "전종율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군민이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청도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청도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새로운 청도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비전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편집국

국민에 대한 진짜 봉사자, 수성구의 진짜 봉사자, 수성구청 정책추진 단장 「정진상」 팀장

수성구청 정책 추진단장인 정진상 팀장은, 92년부터 지금까지 행정공무원으로써의 성실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최선을 다하고, 주변의 모범이 되는 수성구청의 대표적인 공무원이기에 이번 경영저널 「칭찬합시다」 에 선정되었다.

공무원을 직업으로 삼은 것이 언제부터이며 그동안 어떤 보직을 맡아왔었나?

1992년 9월 첫 공직을 시작하였으며(9급 서기보) 일자리경제과, 행정지원과 행정팀장, 기획예산과 기획팀장을 거쳐 지금의 정책추진단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헌법 제7조 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공무원 헌장에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뻔한 답변같지만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일에 치여 잊고 살기도 하지만 후에 돌아봤을 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공무원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직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자신의 장점 혹은 강점은 무엇인가?

강점이라기보다는 소통능력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 수행은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예산 문제,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 수행과정에서의 의견조율 등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구정방향을 바탕으로 한 제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협력으로 섣부른 판단과 편견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었고, 공직 생활에서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공무원의 특성상 업무가 순환적으로 바뀌는데,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의 어려움은 없는가?

아무래도 전문 기술직이 아니라 행정직군 중에서도 일반행정직이다 보니 어느 부서든 어떤 업무든 발령나는 대로 다 맡아서 업무수행을 해야 합니다.

적게는 1년 많게는 3년까지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일반행정가적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장점과 동시에 행정

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진 체제가 바로 순환보직 체제이며 또한 여러 보직을 거치며 얻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은 제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켰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업무는 항상 두려움과 설렘을 동반하였지만 막상 마주하다보면 그 끝은 항상 설랬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야 왜 없었습니까?

절실한 노력이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책추진단 업무 총괄 업무를 수행중인데, 이에 대한 소감은?

지금까지 사회는 도시 인프라의 양적 팽창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현시점은 인구, 산업, 경제 등 사회구조 전반이 줄어드는 수축사회에 직면해 있다. 도시가 생존할 수 있는 방향은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유일성이며 지속가능성입니다.

"대구의 강남"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살기 좋은 수성구가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갈수록 사회 변수는 다양해지고 변화의 속도 또한 빠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변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책추진단은 도시의 유일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말 그대로 정책추진 부서입니다.

도시유일성 진흥과 미래도시 정책, 수축사회에 대응 문화·생태도시를 대변하는 '생각을 담는 도시', 캐릭터를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시킬 수성구 '뚜비' 캐릭터 활성화 정책 추진, 기초지자체 최초의 건축 조경 비엔날레인 '수성국제비엔날레' 개최 등 도시의 유일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미래 변화에 대비해 앞서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부서 존립이 흔들리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구정 주요 정책을 맡아 부담되기도 하지만 동료 팀장·부서원들과 함께 수성구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인가?

보람차고 즐거웠던 과거의 추억이 많지만,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 바로 지금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차고 즐거웠던 순간은 정책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다른 동료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나? 별명이 있는가?

"진상, 이런 진상, 진상이네" 농담삼아 동료들이 편하게 부르는 별명입니다.

앞에서 웃으면서 편하게 부르는 걸 보니 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동료들과 뜻을 함께하는 친근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공직생활에 있어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는 무엇인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타임테이블로 보자면 이제 후반기 막바지다 보니 제 나이 때 동료들이 남은 공직 생활에 대한 향후 계획과 퇴직 후 삶을 많이들 고민하는데, 본래 미래를 걱정하는 성격이 아니기도 하고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하루하루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원현 기자

글로벌뷰티산업 K-뷰티 선봉에 선
'㈜에스크컴퍼니 안중현 회장' 인터뷰

최근 K-POP의 전 세계적 열풍과 함께 산업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K-뷰티의 성장세가 거침없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84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성장률보다 중요한 건 중국에 의존했던 화장품 수출이 북미,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165개국으로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명백하게 글로벌 뷰티로 자리잡은 K-뷰티의 선봉에 서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에스크컴퍼니다.
㈜에스크컴퍼니의 안중현 회장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눠보았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에스크컴퍼니를 맡고 있는 안중현입니다. 지난 30년간 다양한 기업을 창립하고, 특히 화장품 산업에서 많은 브랜드들을 성공시켜 온 경험을 담아 2018년에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화장품과 건기식을 연구개발하고, 브랜드와 제품을 만들고, 직접판매 시장을 통해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 이후 회사는 예상보다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고, 2022년부터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추월하여 국내 후원방문판매 기업 1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경영 철학과 성과를 인정받아 21년에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기획재정부로부터 사회공헌 대상, 22년에는 환경부로부터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회사가 받은 수상 내역은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23년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았던 1,000만불 '수출의 탑'입니다. 제가 회사를 설립한 가장 중요한 목표의 첫 발자취이었기 때문입니다.

Q 그렇다면, 에스크컴퍼니를 설립한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요?

A 30년 동안 화장품을 개발하고 만들어 오면서 느낀 것은, 화장품 산업에는 종주국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글로벌 브랜드들은 모두 미국이나 유럽의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들이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에 소수의 글로벌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기반은 고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글로벌 브랜드가 없는 현실을 보며 세계에서 통하는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접 판매 산업에선 여전히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특히나 글로벌 시장에서 화장품으로 성공한 우리나라 회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사를 창립할 때부터 준비해 온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인 K-뷰티의 트렌드와 함께 우리는 예측보다 빠르게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K-뷰티와 회사의 글로벌 성장에 대해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A 지난해 유로모니터가 주요 20개국 소비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의 '국가명이 포함된 뷰티용어를 알고 있습니까?'는 질문에서 K-뷰티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전세계의 30%에 가까운 소비자들이 K-뷰티를 알거나 경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흥미

뉴욕 펜타그램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Paula Scher와의 제품 디자인 관련 회의 중인 안중현 회장.

로운 것은 국가명이 들어간 뷰티 카테고리의 개념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K-뷰티의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시장에서의 인정이 중요했고, 한국 후원방문판매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저의 1단계 목표였습니다. 목표 달성이 확실시됐을 무렵, 우리는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자사의 브랜드 광고를 집행하며 글로벌 진출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진출 이후 약 1년 반이 지난 올해 6월 기준, 우리의 글로벌 매출은 누적 1,6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직접 판매기업에서는 처음 이룩한 성과입니다.
저는 우리의 글로벌 진출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K-뷰티의 전 세계적인 유행이 이제 막 성장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Q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낸 비결은 무엇인가요?

A 무엇보다 차별화에 집중했습니다.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함과 관계없이 저를 상품 개발자이자 마케터라고 말합니다. 특히 화장품 사업에서는 차별화된 제품과 브랜드가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회사를 창업할 때도 처음부터 글로벌 수준의 차별화된 제품과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조직으로 세팅했습니다.
원료를 연구 개발 및 생산하는 회사, 제품과 브랜드를 기획하는 회사, 영업과 물류 등 유통 전반의 책임을 맡는 회사를 분리해 계열사들을 만들었고 각각의 전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제품과 브랜드를 기획하고 만드는 일은 제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챙기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전문적인 회사가 힘을 모아 만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되는 브랜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이에 국내를 넘어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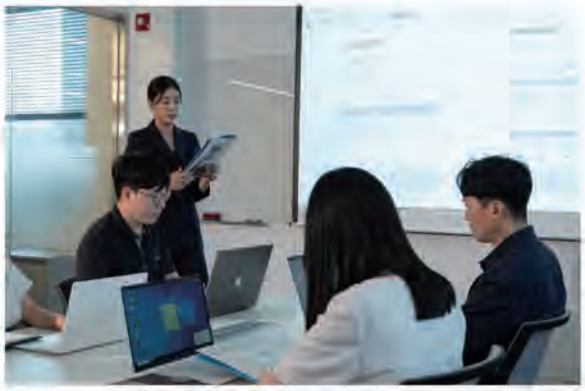
Q 앞으로의 목표 및 포부를 알려주세요.

A 우리는 지금 완전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글로벌 수준으로 바꾸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향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판매산업에서 K-뷰티의 선두에 서있다는 사명감으로 글로벌의 어느 곳보다 높은 레벨의 내부적 기준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K-뷰티를 글로벌 뷰티의 메인스트림으로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글로벌뷰티기업으로 승승장구 세계로 뻗어나가는 ㈜에스크컴퍼니의 안중현회장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최고의 명문고 경신고등학교 출신으로, 현재 그 바쁜 와중에도 총동창회장직을 수행하며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심혈을 쏟고 있다.)

편집국

최고의 노하우로 아웃소싱 분야 리더로 우뚝서다.

아웃소싱 전문기업 [주]바스코



4차 산업혁명 시기의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활용하여 업무를 분산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자원의 최적 활용과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기업들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전략의 일환으로 자리잡았다.

아웃소싱(outsourcing)은 기업체나 조직에서 본인들의 핵심 업무(core task)가 아닌 비핵심 영역의 업무를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외부의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용어이지만 아웃소싱은 21세기의 시점에서는 과학기술이나 지식뿐만 아니라 물류, 생산, 마케팅,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아웃소싱 리딩기업 ㈜바스코

모든 기업이 최고의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의 통합된 고객 관리 서비스 문화를 추구함으로써 고객사의 CMR정책이 고객 만족의 극대화로 이어지는 최고의 노하우로 아웃소싱 분야 최고의 리더로 우뚝 선 기업이 있다. 제갈정 대표가 경영하는 ㈜바스코다.
대구시 중구 동덕로74 포도빌딩 2층에 본사를 둔 ㈜바스코는 2010년 8월부터 꾸준히 고객사의 니즈에 발맞춰 성장·발전해 왔다.

꾸준히 성장·발전하는 ㈜바스코

2010년 ㈜대성휴비스를 설립하여 근로자파견허가, 위생용역업, 경비업을 추가 개설하였고, 2013년 (주)대성휴릭스 법인을 신설하며, 2015년 대구·경북 농협(대형마트)에 인력공급을 진행, 2016년 공기업 인재파견, 호텔·레저업 인력공급, 생산, 물류, 유통, 축산, 미화 직종 인력공급, 2018년 ㈜바스코를 설립하고 건설업 및 서비스업에 인력공급, 2019년 경북지사를 설립하여 건설관리 지원, CMR서비스 운영, 헤드헌팅 사업부 운영, 요양 일자리 지원, 그 외 유통 및 미화 직종 인력공급 등을 진행해 오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바스코는 최적화된 조직력으로 고객사의 니즈에 맞추어 호흡하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고의 서비스로 노력해 오고 있다.
㈜바스코는 마케팅 및 고객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Front Office 기능과 사무지원, IT지원 및 생산·물류 업무를 수행하는 Back Office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하며 아웃소싱 사업을 수행한다.

다양한 아웃소싱 사업분야

사업분야는 ◇제조·생산, ◇시설관리, ◇유통·물류, ◇특수사업, ◇인재파견, ◇채용대행, ◇TM(컨텍센터), ◇헤드헌팅 등 다방면에서 과업을 수행한다.
나아가 ◇교육사업, ◇요양 일자리 사업, ◇건설지원 등의 아웃소싱도 지원한다.

◇제조·생산 분야에서는 생산성, 무사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무결점 운영 및 관리로 생산성의 기준이 스피드와 유연성 외에 효율성이 중시되는 스마트 공장이 느는 상

황에서 고객사 제품의 생산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맞춘 전문화와 철저한 설계와 분석에 의한 업무 정량화를 통해 품질향상과 현장 무사고를 최우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스코는 보건안전경영시스템(IOS 45001) 인증을 획득하고, 산업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내부조직(본부)보유, UPS(Unies Production System)보유, 매년 안전환경평가 실시를 통한 사고예방활동, 그룹사 MRO 시스템 보유 등 무결점 운영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시설관리에서는 철저한 인원 관리 및 교육을 통해 투철한 직업정신과 책임감으로 소속감과 주인의식으로 무장된 직원을 순환 배치시켜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로 인적·물적 손실을 방지하고, 재산의 가치 보전 경영 및 관리 목표의 달성, 불특정 다수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화재, 도난, 파손을 예방하는 등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

◇유통·물류에서는 매장관리, 마케팅, 판매 판촉,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바스코만의 일관되고 표준화된 특급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고객사의 장기적인 물류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이익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생산성 관리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현장경영 모델은 이미 고객사의 '토탈 아웃소싱'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

◇인재파견에서는 이를 통해 기업은 급변하는 시장에서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응력을 확보함으로써 핵심 업무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바스코는 ◇고객사의 의뢰로 정규직 또는 계약직 사원의 채용 절차 업무를 대행하고, ◇공공, 금융, 유통, 방송·통신 병원, 제조 등 전 사업 분야에서 컨텍센터 운영서비스로 고객 접점을 통한 CMR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바스코의 대표적인 아웃소싱 파트너사로는 ◇㈜샤니, ◇한국가스기술공사, ◇농협하나로마트, ◇신한카드, ◇라이나생명 등이 있다.

국내외 최고의 아웃소싱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

㈜바스코는 차별화된 아웃소싱 운영 역량과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 전문 Consultant 현장 운영, 그리고 주기적인 업무평가 Program으로 경영안정성과 차별화된 노하우를 갖추고 고객에게 BUSINESS SOLUTION을 제공한다.

제갈정 대표는 "무한경쟁의 현대산업사회에서 모든 기업은 최고의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스코는 비용 절감을 뛰어넘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기업의 성장과 생존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진화하였습니다.

각 고객사의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바스코의 전략적 사고는 이미 바스코 고객사의 탄탄한 성장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은 자만하지 않고 「Why outsource? Why BASCO?」에 대해 우수한 자원을 집중 발굴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을 견인하는 리더를 넘어 고객사 모두가 세계적 수준의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 역량을 총집중하여 혼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바스코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비전에 대한 전망을 힘차게 밝히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편집국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여유로운 가을을 알리는

「2024수성못 페스티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하는 9월이 되면 수성못 일대에서 풍성한 공연 예술축제가 일대에서 펼쳐진다.

수성못페스티벌은 대구시민과 관광객이 사랑하는 대구 대표명소인 수성못에서 시민들이 새롭고 다양한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는 공연예술축제로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다.
올해는 2024년 9월 27일(금)에서 9월 29일(일) 3일간, '함께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희망이 가득했던 수성을 돌아보고, 유일한 수성의 내일을 향해가는 도약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올해 9번째 맞는 이번 축제는 수성못 상화동산, 수상무대, 울루루문화광장, 들안길 등 수성유원지 전역에서 진행한다. 퓨전 국악 콘서트를 시작으로 일명 B.O.A(Best of Artists)콘서트, 수성 행복 콘서트, 거리 예술 공연,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열린다.

첫날인 27일은 '퓨전 국악 콘서트'로 축제의 포문을 연다. 아름다운 수성못을 배경으로 국악관현악단을 초청해 국악과관현악,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협주곡을 선사 함으로써, 전통음악의 흥과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함께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모두 즐길수 있는 수성못 축제 개최

28일 열리는 B.O.A(Best of Artists)콘서트는 장르별 최고 수준의 뮤지션들이 대중성과 예술성을 검증받은 작품으로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거리 예술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수한 단체를 공모로 선정하여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축제 슬로건인 "함께 행복하게"를 토대로 주제 공연인 "수성행복콘서트"를 연다. 수성구의 예술자원과 시민합창단이 함께 하는 합창 대향연이 펼쳐지는 것이다.

행사장 일대는 남녀노소 누구나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수성못 사생 실기대회, 초·중학교 음악 어울림 마당 과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등 가족 또는 연인이 함께 추억을 남기고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축제 3일간 남편 산책로에서는 들안아트몰이 운영되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28일 열리는 들안길푸드페스티벌에서는 50여 개의 들안길 맛집 음식 즐길 수 있다.

김수영기자

무르익는 가을 흠뻑 즐기기 좋은 축제,
청도 반시 축제 &
청도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

청도반시를 즐기고 환상적인 웃음과 문화의 향연인 청도 대표 축제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청도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제 2회 「2024청도반시축제와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로 동시 개최된다.

작년 2023년 청도 반시 축제는 플레이존에서는 황금반시를 찾아라, 화랑활쏘기체험, 감식초 족욕장, 도시어부, 비눗방울 체험 등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즐기며 쉴 수 있는 전용 놀이공간을 확장해 운영되었다.

또한, 인간 반시 자판기, 감물염색 체험, 천하제일 반시대회, 감따기 체험, 감잎차 다도체험 등 청도반시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

올해는 더욱 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한다 하니, 더욱 기대해 볼만도 하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야외 공연장에서는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청도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도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과일이면서 동시에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인 감나무가 많은 청도에서의 반시축제는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코미디아트 페스티벌 까지 즐긴다면 재미거리 까지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올해의 세부 프로그램은 아직 조율 중에 있음으로, 세부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정을 기억해 두었다가 10월 주홍빛 반시가 영글어 가는 가을에 청도를 찾아 축제를 즐겨보면 좋을 것 같다.

축제와 함께 청도에서 가볼만한 다른 관광지로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청도소싸움미디어체험관」을 추가로 들려보면 좋을 것이고, ◇어른들이 있다면 「청도 와인터널」을 방문해 시원한 터널에서 감와인을 음미해보는 것 도 좋을 것 이며, ◇빛축제의 운치를 즐기고 싶다면, 「청도프로방스」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예술적 감성을 충전 할 수 있게 선택하여 추가로 방문해 보시길 추천한다.

이렇게 청도 반시 축제도 즐기고, 추가로 청도의 관광지도 방문해 본다면, 즐길거리가 많은 재미있는 청도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 이다.

김수영기자

대한민국의 출산율 급감에 대하여 지방대학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성원교수

대한민국의 출산율 급감은 경제, 교육, 국방, 사회 복지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이에 따른 학령인구 저하는 지방대학에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생존의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심각한 대한민국의 출산율 현황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의 경우 2018년에 0.98로 1명 이하로 내려간 이래로, 2020년 0.84, 2021년 0.81, 2022년 0.78, 2023년 0.72로 꾸준히 감소하여, 이제는 국가 소멸을 걱정할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처참한 결과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학자들은 높은 주거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여성들이 출산 후 경력 단절에 따른 출산 기피,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사회적 트렌드 등을 들고 있다.

급격한 학령인구 저하와 지방대학의 위기

이에 따라 학령인구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단계적으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대학생 입학생 수도 감소하여, 대학교에서는 일부 학과가 폐지되거나 통폐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나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신입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과 수도권 대학의 자율전공제 확대 등과 맞물려 소위 지방의 명문대학이라 할지라도 신입생 모집에 심각한 고민거리를 안겨주게 되었다.

이렇게 학생 수가 감소하면 등록금 수입도 감소하므로, 지방대학의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시설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당연히 재정이 악화되면 교수진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학생 모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방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대학이 어려움을 겪으면 지역 경제와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1) 사회 전반의 정책적 고민

결국 이러한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의 출산율 저하가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지방대학 자체만의 개선으로는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출산율 급감을 매우 심각한 생존의 첫 번째 문제임을 자각하여, 재정적 지원 등 범정부적 정책뿐만 아니라, 육아를 수월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매우 필요하다.

2) 지역 특화 교육 및 맞춤형 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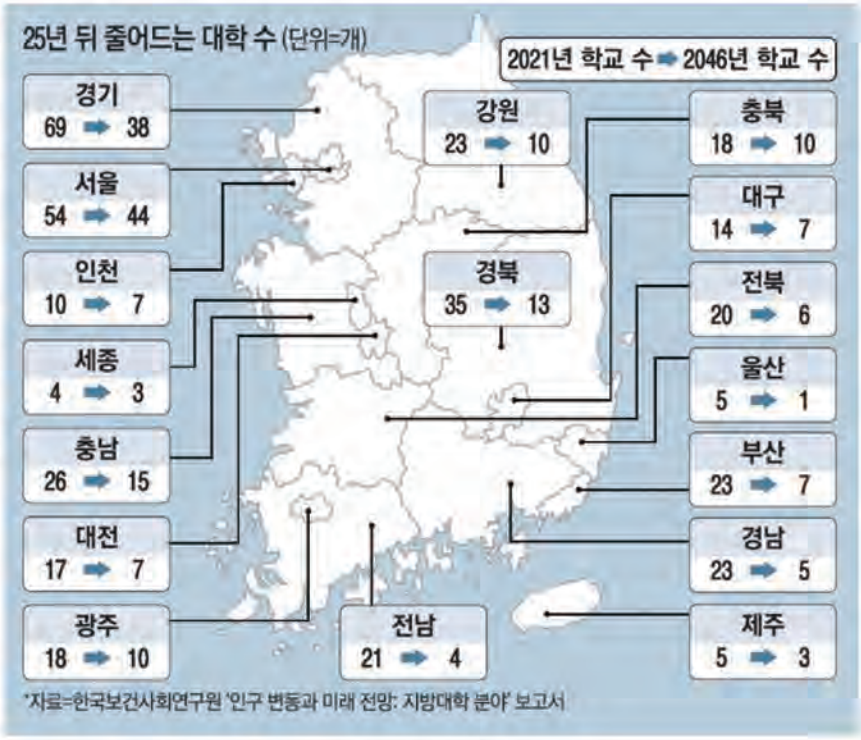
지방대학도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나름의 자구책을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막연히 수도권 대학을 흉내 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수요, 지역의 산업 및 경제 구조를 고려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3) 산학 협력 강화

이제 지방대학이 학문의 상아탑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다.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4) 다양한 학생의 유치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영남대학교만 하더라도 어느새 외국인 학생이 부쩍 증가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 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홍보하여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외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도 흡수하여야 할 것이다.



5) 평생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흔히 백세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막상 퇴직 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준비가 된 사람이 많지 않다. 지방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에게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평생교육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의 수행 등을 통하여, 나름의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와 이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대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나, 지방대학이 우선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여야만 한다. 사회 분위기만 탓하지 말고,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다양한 학생 유치 전략을 펼치면서 절실한 생존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 수사권, 인권무시 등 부정적

문재인 정부, 2018년 검경수사권 조정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검·경찰의 수사권으로 분리하였다.

법무부는 경찰수사가 6개월 초과한 사건이 2020년 전과 후를 비교하면 10% 이상 지연되고, 복잡한 법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30% 이상 지연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수사, 대부분 부정적 답변

또한, 경찰수사 문제점과 개선토론회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에 민변 변호사 47명을 대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권조정 이전과 달라졌나』의 질문에 부정적 응답이 95.6%로 나타났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의 질문에도 66%로 과반이 넘는 부정적 답변이 나왔다.

경찰수사권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검경수사권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상호협력적 관계로 전환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인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

형소법을 살펴보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 사건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결합해 검사가 모든 수사기관을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강제수사는 법관의 영장발부로 통제하며, 수사지휘권은 보완수사 요구권, 기록등본 요구권, 그리고 시정조치 요구권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사후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화성동탄경찰서 등 고소인의 의견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

그러나, 화성동탄경찰서는 2024년 6월 23일 일명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에 대해 20대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성범죄로 누명을 씌우고, 2023년에도 20대 남성은 「반려견을 쓰다듬기 위해 쪼그려 앉았다」가 성범죄로 신고당하여 고초를 겪었다.

「군인 등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는 무조건 경찰로 이송한다. 경찰의 수사권은 증거도 없이 고소인의 의견만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귀찮아서 수사 한번 없이 법원에 공소한다는 사실이다.

경찰수사 인권무시 및 전문성 결여

대형 및 중요사건일 경우는 경찰수사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특히 성과 관련된 범죄는 CCTV 등 제대로 된 조사와 명백한 증거도 없이 고소인의 의견만으로 범인으로 낙인찍고 있다.

경찰 수사관들은 대부분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법과 수사의 전문성이 결여 된 짧은 경력의 경사 이하로 하여금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수사는 헌법과 형법 등 6법과 수사기술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경찰이나 변호사 등으로 하여금 수습 등 과정을 거쳐 최소 5급 이상 수사관을 투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경은 반드시 매년 수사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모니터링을 하여 억울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이가윤 기자

www.dghrd.co.kr

'대경인재개발원'은

경영평가사, 리더 역량개발, 그리고 인재양성 등
교육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 및 프로그램

- AI·인재양성
- 리더십 역량개발
- 창업 및 기업가 정신
- 경영평가사 자격수여
- 성공 및 감성마케팅
- 테마별 맞춤 특강
- 학점인증제 및 교육훈련
- 펀(Fun) 경영 등 경영전략
- 주민자치대학, 좌담회, 토론회 등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구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30, 그루타워 502호
(대흥동 873-1)Tel) 053.721.6757 Fax) 053.766.0379

경북본부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766.1368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기공식 개최

랜드마크 관광보행교 및 조경시설 설치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며, 다양한 즐거움을 느끼는 매력적 공간으로 조성

대구광역시는 7월 2일(화) 오후 3시, 디아크 문화관 일원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시의회 및 관련 기관,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금호강 르네상스의 선도사업으로,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계약 절차를 마치고 그간 본격 착공 준비를 해왔다.

본 사업은 2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이며, 낙동강과 대구 전역을 관통하는 금호강이 합수하면서 지리적·생태적 상징성을 보유한 디아크 일원에 주변 관광자원(달성습지, 대명유수지, 화원관광지)을 연계하고 단절성을 개선하여 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 하천을 조성한다.

랜드마크 관광보행교는 길이는 428m, 폭은 5m이며, 2개의 특화 공간인 아크 베이와 아크 테라스로 구성돼 있다.

아크 베이는 최대 폭 10m를 확장해 15m 공간에서 낙하분수를 내려보고 낙수소리를 들으며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이며, 아크 테라스는 최대 폭 3.5m를 확장해 8.5m 공간에서 달성습지와 낙동강 금호강 합수부를 조망할 수 있도록 캐노피를 설치한 계단식 전망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조경시설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흥멋문화광장과 달성습지와 연계한 생태적 공간의 달성갈대원 산책로, 그리고 랜드마크 관광보행교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디아크 풍경의 창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달성습지·대명유수지~화원유원지 간 분리돼 있는 관광자원을 통합·연계해 대구를 대표하는 친수형 관광거점 조성을 통한 전국적인 관광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선도 사업인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금호강 전 구간에 걸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대구를 글로벌 내륙수변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간송, 대구로 오다’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전 출품작 이송 완료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국보·보물 문화유산 98점,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구간송미술관에 안전하게 이송 완료

대구간송미술관의 개관전시(9월 초 예정)에 선보일 국보·보물 등 국가문화유산 98점이 간송미술관(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대구간송미술관(대구 수성구 소재)으로 이송됐다.

국보와 보물 등 전시 출품 예정 유물들은 경찰청(서울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대구경찰청 등)의 호송 협조로 안전하게 이송됐으며, 미술관에서 보존 처리 과정 및 전시 준비 작업을 거친 후 오는 9월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이송은 1938년 간송미술관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국보 68호)’, 신윤복 ‘미인도(보물 1973호)’등 98점에 이르는 국보급 문화유산이 포함돼 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연면적 8,003m²에 지하1층·지상 3층 규모로, 6개의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올해 4월 준공돼, 9월 초 개관전시(가칭: 간송 국보·보물전)를 앞두고, 종합시운전 등 철저한 사전점검과 준비 과정을 진행 중이다.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전은 2024년 9월 3일(화) ~ 12월 1일(일)(예정)이며,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한 국보·보물(41건 98점) 및 간송유품(18건 42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여러 관계 기관의 노력과 도움으로 이송이 안전하게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문화유산 전시를 통해 대구간송미술관이 세계적인 문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영기자

경북도, 민간전문가 그룹 활용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모색

공항투자본부로 조직개편.투자와 공항, 민간 자본을 한 곳으로 모아 시너지 창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소재 2024년 투자유치특별위원회 개최

경상북도는 10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수도권 소재 투자유치 특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투자유치 특별위원회'를 두 번째로 개최했다.

민선 8기 제2기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위촉직 위원(공동위원장 포함)과 당연직 위원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구윤철 前 국무조정실장, 이순우 前 우리은행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대기업 임원 출신, 기업 CEO, 금융전문가, 언론인,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투자유치단과 민자활성화과, 공항추진과, 항공산업과, 입지산업과로 구성된 공항투자본부를 신설해 민간투자 영역 관련 업무를 보다 강화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북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K-Food 선도기업의 생산 거점 및 경북 전통종가 음식 체험센터 유치 ▲영천 고경산단 알루미늄 산업 생태계 조성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투자 프로젝트 ▲수직 식물 공장 및 유리온실 스마트팜 유치 ▲분산에너지활성화법에 의한 전력요금 차등화 등에 대해 위원들은 깊이 있는 토론을 가졌다.

경상북도는 2024년 핵심 시책으로 ①저출생 극복, ②민간 주도 지역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올해 3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을 선제적으로 출범시켰다.

도는 투자 펀드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대규모 관광인프라와 의료시설을 포함해 공공이 하기에는 재정이 부족하고, 민간 단독으로는 수익성이 부족해서 힘들었던 사업들을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윤철 공동위원장은 "경북도는 최근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로 세계 이목이 경북으로 집중될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번 기회로 외국 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투자유치 특별위원으로서 경북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올해는 조직개편으로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공항이 한 부문으로 모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진 만큼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자유치 특별위원 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 농업·농촌의 미래 생활개선회의 땀으로!

2024 경북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개최, 변화와 혁신으로 경북농업 새 도약 다짐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는 12일(금)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생활개선회원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4 경상북도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김학홍 경상북도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박성만 경상북도의회의장, 조현일 경산시장, 국회의원, 경북도의회 의원과 많은 내빈이 참석해 회원들과 함께 대회를 축하했다.

이날 대회는 '경북 농업·농촌의 미래 생활개선회의 땀으로!'라는 주제로 농업 · 농촌의 변화와 혁신으로 지방 시대를 준비하고, 저출생 극복에 생활개선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경북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장이 됐다.

아울러 저출생 극복에 대한 의식을 가지기 위해 다자녀 가정 3가족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지역농산물 전시·판매·시식회에서는 우수 농산제품을 홍보하고, 친환경 수제 천연염색 제품 등을 판매해 회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숙자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장은 "오랜만에 생활개선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더욱 단합하고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미래 농업,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학홍 경상북도행정부지사는 "생활개선회가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여성의 섬세함과 포용력을 발휘해 경상북도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는 지난 1958년 생활개선 구락부로 발족한 이래 현재 도내 303개 회 1만 2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촌 여성 학습조직체로 지난 66년여 동안 과학영농과 생활 기술 실천은 물론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수영기자

경영저널은 불편한 진실을 알려 정부 당국과 관계자들이 법과 제도 등을 개선하기를 바란다.

[KBS TV 수신료]

TV 수신료, 07월 12일부터 분리징수

TV 수신료는 2023년 07월에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수신료를 징수할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되서는 안된다」고 개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06월 30일에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12일부터 분리징수를 시행하게 되었다.

KBS 수신료, 전 국민에게 모바일 발송

KBS는 수신료 납부 고지서를 전 국민에게 모바일로 발송하면서 TV를 볼 수 없는 사무실 등에도 TV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리징수 이전에 사무실 등은 통합부과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납부한 금액을 환불 받아야한다.

그리고, 공동주택 가구들은 아파트관리비 내역서에 시청료와 수신료가 이중으로 납부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중으로 납부한 금액은 환불받아야 할 것이다.

TV 수신료, 1994년 전기요금과 통합징수

KBS는 1961년 국영방송으로 개국하면서 「국영 TV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TV 수상기를 갖고 있는 가구에 시청료 100원/월을 징수했다.

그 후 1981년 컬러TV는 2500원/월과 흑백 TV는 800원/월을 시청료로 징수하자 집집마다 TV를 숨기고, 시청료 거부 운동까지 하였다.

정부는 시청료를 TV 수신료로 이름을 바꾸고,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였다.

아파트관리비, TV 수신료 징수

윤석열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아파트관리비에 TV 수신료 항목을 넣어 관리실을 통해 징수하도록 했다. 주택의 경우는 청구서를 통해 납부를 하였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수신료를 제외하고 전기요금만 내면 되고, TV 수신료는 전용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KBS는 지상파와 공중파 방송을 보지 않고,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방송만을 보는데도 TV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가윤 기자

"경영 실적 보고서 작성 역량 강화 실무 교육"

경영 평가사1급 자격시험!

8월 시험공고!

경영 실적 보고서 평가 등급 "S" 받기

- 자격명 : 경영평가사1급
- 등록번호 : 제2023-004860호
- 자격발급기관 : 주식회사 대경인재개발원
-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인 자격증 승급시 1급 필기 면제 혜택까지

과목		대상자	일정
ESG와 지속가능경영	조직 관리와 리더쉽	경영 평가사 활동을 희망하는 자	홈페이지 참조 및 세부 사항은 전화문의
경영평가 방법론	회계 세무의 이해	공공기관 및 기업의 경영 실적 보고서 관련 담당자	대경인재개발원 홈페이지 www.dghrd.co.kr
인적자원 관리론	경영실적 보고서 실무	경영 평가 위수탁 용역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자	교육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위 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문 의 ☎053-766-1368

|주|대경인재개발원

경영평가 실적 관련 용역수행 ·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 문화예술

어린 세포에 빛을 전하는
Byungpool Energy Fluid의 힘

더마톨로지 퍼스트 패키지 EX I 엑티브 크림 EX